

건축물 정보 내달부터 누구나 쉽게 볼수 있다

국토부, 건축물 대장·인허가 등 2억8000건 일반에 전면 공개 이용자 정보 수집 시간·비용 절감

건축물 대장과 건축 인허가 정보 등 정부가 보유한 2억8000건의 건축물 정보가 일반에 전면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정부의 건축행정시스템에 입력된 건축·주택 관련 정보를 '건축데이터 민간 개방 시스템'(open.eais.go.kr)을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건축물대장(2억건), 건축인허가(5300만건), 주택사업승인(840만건), 말소대장(1800만건), 건물에너지정보(1만2000건) 등 1504개 항목, 총 2억8000여건에 달한다. 정보는 대용량 원시데이터, 맞춤형 검색서비스, 지도·도표서비스 등 데이터·통계 형태로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원자료 형태로 공개하는 건축물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민간업체 6곳을 선정해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 정보 공개로 인한 파급 효과가 1조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 업체의 경우 태양광 전력생산 정보를 분석하는데 걸린 시간이 기존 6일에서 3분으로 줄었고, 창업입지 컨설팅 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정부의 건축행정시스템에 입력된 건축·주택 관련 정보를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open.eais.go.kr)을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 광주시 서구 동천동 상가건물. (광주일보 자료 사진)

하는 기업은 비용의 50%를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국토부는 또 공개한 정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외부 개발자나 사용자 등과 정보를 공유하는 '개방형 프로그램개발용 인터페이스'(오픈API) 개발을 추진한다. 올해까지 10여종의 오픈API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8년까지 건물에 입주한 업종정보, 에

너지 사용량 정보, 주차 정보 등을 건축물 단위로 통합해 정리하는 '건축물정보 융·복합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보 공개로 이용자가 정보를 생산, 수집, 가공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돼 국민 편의 향상은 물론 양질의 창업 및 사업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시중은행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판매

중대형·고가 주택 구입 쉬워질 듯

지역 확대·기준 문턱 낮아져

정부가 27일 국민주택기금에 시중은행(우리은행)을 통해서도 연 1%대 초저금리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판매하기로 하면서 무주택 또는 1주택 이하 가구 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중은행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종전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달리 소득제한이 없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전용면적 102㎡ 이하까지 지원하면서 소득이 높은 중산층들도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연 소득액이 수익률이 넘는 고액연봉자도 현재 집이 없거나 보유중인 주택을 대출 취급일로부터 1년 내에 처분하면 7년간은 연 1.1%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114 환영진 리서치센터장은 "공시가격 9억원, 전용 102㎡면 시세로는 11억~12억원, 서울지역의 30~40평형 중대형 아파트까지 수혜 대상"이라며 "무주택자는 물론 기존 1주택 보유자 가운데 주택을 교체하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시세가 12억원 이하이면서 전용 102㎡ 이하인 아파트는 수도권과 세종시, 광역시, 인구 50만 가구 이상 도시까지 모두 포함하면 총 520만여가구가 은행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대출 가능

범위에 있다. 시중은행 공유형 모기지가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만 5년 뒤에 주택을 팔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연 1%대의 초저금리가 지원되는 7년 동안만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한 뒤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사람이 많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가구당 주택 평균 보유기간이 7~8년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가 연 1.1%의 초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도 취급 지역이 확대되면서 이용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현재 시세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금 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은 총 477만여가구에 이른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기존의 공유형 모기지가 장기 저리 대출상품인 디딤돌 대출과 번별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으며 초반 인기를 계속 이어가지 못했다"며 "이번에 대출 지역을 확대하고 심사 기준 등 진입 문턱을 낮추면서 수요층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연 2%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7년 거주기간의 주거비용은 수익공유형보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국민 77% "향후 주택 구입 하겠다" 주택금융공사 설문

아파트·단독주택 순 선호

일반 가구의 상당수가 앞으로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으며, 서울에서 집을 마련할 때 평균 희망가격은 4억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8~10월 전국 5000개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14년 주택금융 및 보급자리론 수요실태'를 보면 2013년보다 5.4%포인트 높은 77.3%가 향후 주택을 구입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무주택자만 보면 주택을 구입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85.1%로 좀더 높았다. 주택 구입 의향이 있는 가구들이 희망하는 주택가격 평균은 2억8544만원으로 조사됐다.

선호하는 주택유형은 아파트(66.8%), 단독주택·다가구(22.8%) 연립·다세대·빌라(7.7%) 순이었다. 전세·월세 등 주택을 임차할 때에는 교통 및 직장과의 거리(27.5%)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고 전·월세금 가격(22.0%), 자녀의 교육여건(16.7%), 쾌적한 거주환경

(16.6%)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주택가격에 대해 일반 가구의 37.7%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지금과 비슷할 것 같다'는 45.2%, '내릴 것 같다'는 17.1%였다. 이중 무주택가구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비율(40.2%)이 더 높았다.

한편 주택공급의 주택담보대출상품을 이용한 2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3.6%가 '상품이용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보급자리론 이용자는 '이자부담이 늘지 않는다(33.3%)'는 점을 장점으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에도 다수가 '시중에서 금리수준이 가장 낮다(37.1%)'고 말하는 등 장기 고정금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전남 관심 물건



◇곡성군 목사동면 소재 밭 등
-소재지: 곡성군 목사동면 대곡리 672-1, 674, 680
-관리번호: 2014-12627-001
-면적: 전 1,980㎡, 전 2,238㎡, 답 1,101㎡
-감정가격: 25,255,200원
-최저입찰가격: 25,256,000원
-입찰기간: 2015.03.02~03.04
-내용: 임야 가운데 농경지가 혼재한 순수농경지대. 672-1, 674번지 현황 일부가 도로, 680번지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



◇구례군 문척면 소재 논
-소재지: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264-2
-관리번호: 2014-17374-001
-면적: 답 966㎡
-감정가격: 16,615,200원
-최저입찰가격: 16,616,000원
-입찰기간: 2015.03.02~03.04
-내용: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구성마을 남서측 인근에 있다. 주변은 마을주변 농경지대다. 구례군청 근거리에 있으며 콘크리트포장 세로와 가까이 있다.

인터넷 입찰은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에서 가능하고 현장입찰은 없다. 문의(1588-5321)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본부 제공>

부동산 메모 <1월 셋째주>

매매, 북구 첨단2지구 매수세 문의 꾸준...전세, 남구 일대 보합세

◇매매

광주는 북구 신용동 일대 매매가가 올랐다. 신용동은 새 아파트가 집중된 첨단2지구가 위치한 곳으로 대형마트, 병원, 공원 등 주거여건이 좋아 매수세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달 들어 전세물건이 아예 나오지 않고 있는데다 매매가 상

승에 대한 기대 심리로 매매로 선호하는 세입자들도 많다. 매매가는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115㎡가 1000만 원 오른 2억5500만~2억8700만원이고 첨단2지구 116㎡가 1000만 원 오른 2억5500만~2억8700만원이다.

◇전세

광주는 남구 일대 전세가가 보합세를 보였다. 지난달보다 세입자 수요가 줄었지만 전세 물건이 나오지 않으면서 계약이 어려운 모습. 전세가는 남구 봉선동 남양휴튼2차 161㎡가 3억9000만~4억2500만원이고 더샵봉선 111㎡가 2억4000만~2억6250만 원이다.

<부동산써브 제공>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8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옹봉	522-7752
우산	512-8116
윤천	371-9818
원곡	961-2339
중양	222-1896
중흥	224-8604
신월	673-1600
첨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침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8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26-160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